

# “여성교육 전문화 앞장”

## 불교여성개발원 준비위 2차 워크숍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이인자)는 23~24일 봉은사에서 제2차 여성불자 워크숍을 열고 교육 프로그램 기초를 하되, 향후 여성불자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화·체계화하고, 사업 및 활동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데 공감을 형성했다.

이 자리에는 김해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안옥선 전남대 강사, 정미숙 경원대 강사, 김정희 이대여성연구원 상임연구원, 김명숙 정신과 전문의, 이봉순 동국대 강사, 이해숙 종교사회복지연구소 소장, 김용숙 '아름다운 나라의 기동' 대장, 이나자 포교사 등 불자 여성 5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불교와 여성(이창숙 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인간관계의 소통과 교류(김남선 참교육상담소 소장)'에 대한 강의와 불교여성개발원의 활동방향에 대한 발제 및 토의, 참가자 소감

나누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지난해 6월 개최된 1차 워크숍이 불교여성을 위한 종단차원의 사업을 고민하고 개괄적인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워크숍은 사업내용 및 계획 등을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 사업·활동영역 확대 공감

### 중앙-지방 교류 가교 역할

이날 참석자들은 불교여성개발원이 조계종 포교원 산하 여성단체로서 대중적 신뢰성을 확보해 중앙조직이 확립되면 지방조직으로 확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연구·교육 분과, 환경분과, 가정분과, 복지분과별 토의를 통해 여성불자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이론개발과 교육사업, 중앙과 지방 여성불자들의 정보 교류와 전문인력 교류



여성불자의 새로운 흐름을 여는 워크숍. 2000.9.23-24/주관 불교여성개발원 준비위원회/사진: 불교여성개발원

○조계종 포교원은 여성불자의 새로운 흐름을 열 불교여성개발원 창립을 앞두고 사업 내용 및 계획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제2차 워크숍을 23~24일 봉은사에서 가졌다.

# 주부 실행담

## 백일홍 나무처럼 ②

나의 마음은 살아야겠다는 생각보다 이제는 죽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슬픔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어제가 큰아들 주민등록증 찾는 날인데 오는 죽으면 나의 제삿날은 큰아들 주민등록증 나오는 날이 되겠구나 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들어 가 막혔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 너무도 아름다운 나의 집... 아, 다 어쩔만 말인가... 갑자기 내 마음속은 온갖 생각으로 흐트러지고 다리의 힘은 점점 없어져 가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끝없이 밀려왔다.

모양이야" 하시는 거였다. 그 순간 우리의 앞에 청평사의 모습이 나타났다. 나는 너무 가슴이 박차서 그 자리에 주저 앉고 말았다. "그래! 너희를 고생했구나" 하시면서 우리를 반겨주듯이 엄마의 포근함으로 부처님은 우리를 맞아주셨다. 법당에 들어가 삼배를 올리려니 하얗게 눈물이 나왔다. 그 순간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무서움은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끝없이 외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내려와 생각도 못하는 길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형님 손을 꼭 잡고 내려왔다. 처음에 내 다리가 빠졌던 다리 앞 그 자리에 자못하게 갈 줄 알았다면 어머니의 뜻



그림·최준석

## 집착·아상속에 산 지난날 반성

대로 조카를 내 자식처럼 돌보며 사랑하겠다고 말씀드릴걸 그제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고집을 부렸을까.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끝없이 속으로 외쳤다.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세상을 떠나면 어머니의 슬픔을 어찌... 그 생각을 하니 정말 미칠 지경이었다. 친정에서도 의동말인데 친정 엄마보다 시어머니가 더 생각나 가슴이 미어졌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그 자리를 하나도 무섭지 않게 건넜다. 그날 너무나 힘들게 청평사 참배를 마쳤지만 부처님의 자비로움을 온몸으로 느낀 날이었고 동시에 시어머니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낀 날이었다. 지난해 청평사 참배는 나를 울여름 대원사 수련회로 이끌었다. 불교를 좀더 알고 싶고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싶었던 것이다. 평소 행복하다고, 사랑한다고, 성격좋다고, 좋은 친구를 많다고 나름대로 자부하고 살았고 그렇기에 내 삶은 아주 소박하면 서도 예쁜 삶이라고 자부심을 느끼며 당연하게 살았던 지난 날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위빠사나 수행을 하면서 내가 누구보다도 집착에서 놓여나지 못하고 아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소중한 경험이었다. (계속)

서희순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 3동>

# 건강식단 사찰음식이 뜬다

## 선재·적문·홍성 스님 강의 사이버 요리방도 4곳 등장

먹을 것이 넘쳐나는 요즘, 자연히 비만과 같은 성인병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 나면서 짜지도 맵지도 않고, 인공조미료와 방부제를 전혀 쓰지 않는 채식위주의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있다. 10월 한달에만 3개의 사찰음식 요리강좌가 개설되어 있을 정도다.

사찰음식전문가 선재스님은 11월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10시 동국대학교에서 '사찰요리 속에 깃든 불교정신과 조리법'을 주제로 강의한다. 02)2260-3056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는 10일부터 2001년 1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 '가을

할마디의 독특한 음식 등이 소개돼 있다.

△http://www.sanchon.com : 산중음식전문점 산촌에서 개설한 사이트. 여천홍국사, 구례 화엄사, 합천해인사 등 각 사찰의 독특한 음식과 조리법을 소개하고 있다.

△http://www.hyangbang.com : 가산스님이 전통 사찰음식을 안내한다.

△http://kkk0531.hihome.com/main.htm : 사찰음식을 대중건강식으로 개발한 김연식씨가 만든 한국사찰음식과 '사찰음식의 외식 상용화 방안' 등에 대한 강연 내용이 소개돼 있다.

△VEGENET-Vegetarian Network : 종교적인 관점에서 의 채식이 조망돼 있다. 도필선 기자

## 불교만화연구소 개원 사이트 'okbuddha' 개설

만화를 통해 보다 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전달 할 교계 최초의 불교만화연구소가 개원한다.

영남불교대 부설 불교만화연구소(소장 김선아)는 1일 개원식을 갖고 불교만화 인터넷 홈페이지(www.okbuddha.pe.kr) 운영, 만화인력 양성, 만화출판, 월간 만화잡지 발행, 애니메이션 창작등의 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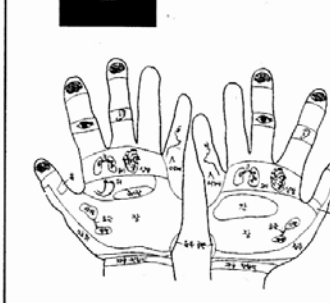
이다.

개원과 함께 시험가동을 거쳐 2001년 공식 개통할 불교만화 홈페이지는 모든 만화가 순수 창작품으로 구성되며 어린이·청소년 뿐 아니라 청·장년들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교만화작가들과도 연계하여 불교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연구하고 토론하여 불교만화출판과 월간 불교만화잡지도 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불교만화연구소는 사이버포교를 위해 애니메이션물을 제작하여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 윤제학기자의 손 이야기 ①



### 손은 몸 밖의 뇌 내장기관 축소판 건강의 바로미터

"손은 또 다른 얼굴"이라는 말이 있다. 한 사람의 손에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이 그대로 투영돼 있다는 말이다. 피아니스트의 손과 농부의 손이 다르고, 의사와 자동차 정비사의 손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손은 몸밖의 뇌"라는 말도 있다. 칸트의 말이다. "손은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다수의 기관'"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도 같은 맥락이다.

진화론의 차원에서 인간 의 '인간다움'은 직립(直立) 즉 '손의 해방'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도구의 조작으로부터

문명이라는 것을 이루어 냈다는 얘기일 텐데, 이는 손의 구실이 단순히 뇌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운동을 주관하는 대뇌피질에서 손을 관장하는 부분이 매우 넓다는 사실로도 확인이 된다. 이 점은 손의 활동이 두뇌의 발달을 촉진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단순화해 보면, 인류의 진화라는 것은 '직립 - 손의 해방 - 손놀림의 고도화 - 두뇌의 발달'이 되겠다. 이렇듯 손은, 인간의 사고나 운동을 제어하는 두뇌활동의 적극적 표현기관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점 때문에 인체의 다른 모든 기관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따라서 '손은 건강의 바로미터'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내장 기관의 축소판 혹은 거울로서의 손과 주요 내장 기관과의 관계는 위의 그림과 같다.

앞으로 연재를 이어가면서, 손과 건강 그리고 손과 사람살이의 얽힌 얘기들을 형식에 얽매임 없이 풀어볼까 한다.

### 지장보살님 조성 안내

불사하시면서 어려운 스님을 위해서 지장보살님을 조성해 드립니다. 불사를 하시고 싶어서도 여력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님들을 위해서 불상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불사에 맞추어 조성해드리며 뜻이 있으신 스님 및 재가불자들의 연락 바랍니다.

◆ 지장보살님을 조성하는 이유

불사하시면서 어려운 스님을 위해서 지장보살님을 조성해 드립니다. 불사를 하시고 싶어서도 여력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님들을 위해서 불상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불사에 맞추어 조성해드리며 뜻이 있으신 스님 및 재가불자들의 연락 바랍니다.

◆ 금주산 약수물로 만든 약수 텃장

병원에서 시한부 상의 선고를 받은 한 보살이 금용사에 기도를 드리러 왔다. 기도드리는 중에 부처님께서 소금 10가마나, 매주 10가마나, 큰돈 10개를 주시면서 만민들에게 먹이도록 말씀하시면서 가셨다. 그후 병은 모두 다 낫았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텃장을 만들어 보급하게 되었다. (택배 가능)

**금 용 사**

경기도 포천군 영종면 금주리 신25-8  
TEL: (031) 533-4405 FAX: (031) 532-3444

### 행운을 따르는 벽조목

벼락맞은대추나무의 수수께끼

옛부터 벼락맞은 대추나무를 몸에 지니거나 보관하면 모든 화를 쫓고 행운을 가져오며 소원이 이루어 진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1998년 11월에서 올롯데백화점에서는 대입 수능시험을 앞두고 합격을 기원하는 행운의 나무 가지기 행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벽조목은 워낙 희귀하여 진품이 어려운데 여기에 진품이 있습니다.

옛 선사에서 좋은 물건은 인연따라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055)742-6044  
011)554-6044

### 등안거 선방 안내

보덕선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동안거선방 안내를 드리오니 뜻이 있으신 비구 스님들께서는 연락 부탁드립니다. 정진 하시는 데 모든 정성을 다해드리겠습니다.

주소 : 서울 성북구 정릉 4동 824-1  
문의처 : 02) 914 - 4235

**보덕선원장 오본 합장**

### 사원 모집

새천년 한국 전통선의 부흥과 대중화를 위한 길라잡이로 거듭날 (재)선학원에서 불교개혁 마인드를 가진 신심있고 유능한 인재를 찾습니다.

- ▶ 모집부문 : 사무행정
- ▶ 인 원 : 1명 (나이, 성별 제한없음)
- ▶ 특기사항 : 컴퓨터 능숙자 우대
- ▶ 학 력 : 전문대졸 이상
- ▶ 전형방법 : 1차 서류면접 2차 면접(추후 개별통보)
-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2차 면접시 지참)
- ▶ 접수방법 : E-mail (jaedan@nownuri.net) FAX, 우편
- ▶ 서류마감 : 2000년 10월 14일
- ▶ 문 의 : TEL. 02)734-9654~6 FAX. 02)734-3410

**재 단 선 학 원**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40번지